



## 사면초가 선동열

정운찬 총재 '대표팀 선수선발 사과' 불구 여론 싸늘  
시민단체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권익위 신고까지  
선수선발 당사자... "대표선발 과정 등 소상히 밝혀야"

대한민국 야구 역사상 첫 전임국가대표 사령탑 선동열(55) 감독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비판적 여론은 더 거세지고 있다.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AG)에서 과연 '국가대표 선수 선발은 공정했는가?'라는 의혹에 더 많은 야구팬들이 공감하고 있다.

정운찬 KBO 총재가 12일 "대표팀 선발에 있어 선동열 감독과 코칭스태프의 결정을 존중한다. 하지만 국민 정서를 반영하지 못한 것에 사과하고 체계적인 보완을 하겠다"며 고개 숙여 공식 사과했지만 여론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다.

KBO는 2015 WBSF 프리미어12 우승 이후부터 효율적인 국가대표팀 운영을 위해 전임감독제를 고심했다. 선 감독은 프리미어12에서 투수 코치로 보여준 역량, '국보급 투수'로 불렸던 현역시절 명성, 국제적인 감각 등의 배경으로 그해 7월 첫 전임감독으로 임명됐다. 계약기간은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다.

그러나 이번 AG을 기점으로 여론이 등을 돌렸다.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오지환(LG 트윈스) 선발

이 큰 이유다. 스스로 정한 "최고 선수를 뽑겠다"는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선 감독은 AG 기간 스스로도 굉장한 부담감을 느꼈다. 금메달을 땀지만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오지환의 병역특례혜택이 집중 조명됐다.

급기야 13일 한국청렴운동본부는 선 감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선 감독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공무원 등의 신분인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고 뚜렷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지만, 국가대표선발 과정에서 부정청탁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의혹 제기다.

선 감독은 지난 4일 귀국 직후 공항에서 국가대표 선발 문제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겠다"고 짧게 답변 이후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정운찬 총재도 아직 선 감독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비판의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 선 감독은 서둘러 국가대표 선발 과정을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 이런 축구열기, K리그로...주말 빅매치가 펼쳐진다

16년 만에 찾아온 '축구 르네상스' 기회  
조현우·문선민·김민재 등 스타 총 출동  
울산-포항 '동해안더비' 등 빅게임 많아



한국축구의 근간인 K리그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돌아쳐보면 16년만이다. 농칠 수도, 농쳐서도 안 되는 절호의 기회가 K리그 앞에 놓여졌다.

한국축구는 지금 오랜만의 호재를 맞이하고 있다.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AG) 우승과 곧바로 이어진 파울루 벤투(49·포르투갈)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의 성공적인 A매치 데뷔 덕분에 그간 그라운드를 외

면했던 팬들이 가득 모여들고 있다. 축구계 안팎에선 2002한일월드컵 이후 16년만의 부흥을 꿈꾸며 장밋빛 미래를 그려나가는 모습이다.

이처럼 한껏 달궈진 열기를 이어받는 쪽은 이제 K리그다. 사실 K리그는 1983년 출범 이후 한국축구의 뿌리로서 수많은 태극전사들을 배출했지만, 언제부터인가 국가대표 A매치와 월드컵, 올림픽 등에 매년 주도권을 내주며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16년 전 찾아왔던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K리그는 절치부심하며 막판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굵직한 A매치를 마치고 돌아오는 스타플레이어들을 앞세워 중흥 열기를 이어가겠다는 다짐이다. 조현우(27·대구FC)와 문선민(26·인천 유나이티드), 김민재

(22·전북 현대) 등 올해를 기점으로 더욱 성장한 이들이 선봉에 선다.

흥미로운 매치에도 팬들을 기다리고 있다. 28라운드 첫 날인 15일에는 3위 울산 현대와 5위 포항 스틸러스가 159번째 '동해안 더비'를 펼친다. 같은 날 선두 전북은 제주 유나이티드를 홈으로 불러들여 승점 쟁기에 나선다. AG에서 금메달을 합작한 전북 김민재와 장운호(22), 송범근(21)은 경기 직후 팬들과의 포토타임을 통해 추억을 공유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16일에는 2위 경남FC가 11위 전남 드래곤즈 원정에서 막판 선두 추격을 벌이고, 8위 FC서울은 9위 대구와 홈경기에서 상위 스플릿 진입을 위한 고삐를 당긴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그동안 팬들의 외면을 받았던 K리그가 오랜만에 호재를 맞이했다. 태극전사들을 향한 뜨거운 관심을 국내 무대로 끌어당기는 힘을 발휘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차례와 평가전이 열린 11일 수원월드컵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 수원 | 김중현 기자 won@donga.com

야구 수학 콘서트·배트로 만든 볼펜...프로야구 마케팅의 진화 ▶2면

"대표팀 독이 든 성배? 최고의 전성기였다" 신태용의 추억 ▶3면

**하루 1포로 효소에 홍삼까지!**

HOPE 발효효소액티브 3g

### 홍삼 함량을 3.3배 높여 더 좋아진 HOPE 발효효소액티브 Active

- 1 자신있는 효소 함량!**  
HOPE 발효효소액티브는 효소를 보충해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잘 분해되고 영양소가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1포에 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가 각각 4500(U) 이상씩 들어 있어, 하루 1포로 무약 3/4개, 키위 약 3개 만큼의 효소를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HOPE 발효효소액티브로 일상의 건강을 챙기세요!  
(키위 76g / 무 400g 기준, 자체실험결과)
- 2 1포에 진세노사이드 5mg 함유**  
활기찬 일상을 위해 홍삼까지 더한 HOPE 발효효소액티브 1포에 홍삼 고유의 사포닌 성분인 진세노사이드(Rg1 + Rb1 + Rg3)를 5mg 담았습니다. 기존보다 홍삼 함량이 3.3배 증가되어 더욱 더 좋아진 HOPE 발효효소액티브 하루 1포로 효소와 홍삼의 건강을 함께 누리세요.
- 3 6가지 건강곡물의 발효 영양!**  
6가지 건강곡물(밀, 귀노아, 현미, 귀리, 렌틸콩, 찰보리)을 발효하여, 효소뿐 아니라 발효곡물의 영양까지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 4 믿을 수 있는 CJ제일제당의 기술력**  
HOPE 발효효소액티브는 CJ제일제당에서 수년 여의 연구를 통해 최적의 발효균주와 발효조건을 찾아냄으로써 탄생된 제품입니다.

**홍삼 함량 UP!**  
구매 혜택도 UP!

**2+2** 세트 구입 시  
2세트 데!

**더 좋아진 HOPE 발효효소액티브 지금 바로 만나 보세요**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722-9988**

\*본 제품은 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